

#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의 인용문헌수집행태에 관한 연구\*

## Researcher's Behavior of Gathering Cited References in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신동민(Dong Min Shin)\*\*

### 목 차

|                        |                |
|------------------------|----------------|
| 1. 서 론                 | 3.1. 조사방법 및 절차 |
| 2. 정보의 유통              | 3.2. 인용문헌 분석   |
| 2.1. 공식 및 비공식 채널       | 3.3. 이용행태 분석   |
| 2.2. 정보의 공동이용          | 3.4. 평가        |
| 3. 연구자의 인용문헌 및 이용행태 분석 | 4. 결 론         |

###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인용문헌 수집경로와 자료 수집행태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 인용문헌 수집경로 확인과 행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질문지 조사방법을 이용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정하였고,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기술통계에 의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설정된 가설에서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었고, 연구경력 및 논문편수와 수집경로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자 상호 간 정보자료 교환 이용과 연구진행 정보의 공개 및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연구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gathering channel of cited references and the behavior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survey by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for the study and the SPSS program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and trend analysis by descriptive statistic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o follows :

- The hypothesis suggested for the study was proved to be true. -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research experience or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and gathering channel of cited references. - Most of the researchers responded favorably to the exchange of informations among researchers including source materials and details of ongoing researches.

\* 본 연구는 1995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논문접수일 : 1996년 5월 13일

## 1. 서 론

현대를 정보화사회라 일컬음은 정보가 사회 모든 현상에 작용하여 크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활동에서 정보야말로 그 시작이요, 끝이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작금의 정보 이용환경은 너무도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연구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연구의 생산성과 효율성면에서 다른 연구자에게 뒤지게 될 것이다. 그 변화들은 대체적으로 첫째, 모든 이용 가능정보의 수록매체 및 유통경로가 점차 전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둘째, 정보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특정주제분야의 정보를 일개 정보관리기관 또는 개인이 모두 소장하거나 단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의 소재뿐 아니라 원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구활동에서의 정보이용에 있어 전자정보에 대한 의식변화와 더불어 동일분야 연구자 간의 정보교환 및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지정보와 더불어 본문을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의 확보에는 전자정보의 경우 매 접속시마다 비용의 부담, 다양한 유통과정과 검색시스템의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의 소모, 공식적 축적매체에 수록되지 않은 정보(예, 수행중인 연구주제, 개인소장 정보 및 가공정보)들의 이용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더라도 학술정보의 대부분이 목록정보 또는 서지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정영미 1995,

42) 원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서는 동일분야 연구자 상호간 비공식적 정보유통채널의 유지·발전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물로서 생산한 논문의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들의 수집경로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자료의 수집경향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로 개인적 자료수집에 대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의 절약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연구자 상호간에 소장자료 및 연구진행정보의 상호이용 또는 교환 등에 대한 행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동일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의 공동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폭발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의 소재 파악뿐만 아니라 원정보의 신속한 입수, 원정보 입수비용 절감과 중복연구 방지를 위한 동일분야 연구자의 연구진행 정보 등의 수집과 공동이용에 대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연구방법으로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문헌정보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와 정보관리학회지(한국정보관리학회) 및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1995년도 발표논문에서 인용(또는 참고)한 문헌을 조사하여 그 문헌들의 수집경로를 파악하고자 하며, 동일분야 연구자의 정보자료 공동이용에 대한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용문헌 수집경로 분석에 대한 가설로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인용문헌 수집에 있어서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주로 이용하기보다는(주로 이용하는

사람의 정의는 공식채널을 통한 자료수집 비율이 76% 이상이거나 25% 이하가 되는 사람, 즉 위 사분위수와 아래 사분위수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연구자가 더 많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즉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연구활동에서 논문작성에 인용한 문헌들을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집을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경력이나 논문 편수가 많을수록 동일분야 연구자들 간의 친분관계가 밀접하고, 각종회이나 비공식적 접촉이 활발하며, 개인소장자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자료수집과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거나, 또는 소속 대학(기관)의 정보이용 채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식적 채널의 이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상관관계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인용문헌에 대한 수집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들의 기억에 의해서 조사하였으므로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인용문헌의 수집경로를 연구자들의 기억에 의존하므로 부득이 최근 1년간에 발표된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수가 적었다는 점, 셋째, 연구자 대부분이 대학에서 연구,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수들이라는 점, 즉 실무진이나 일반 연구원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무자 등이 주로 논문을 발표하는 문헌정보학 관련 기타 전문지 등을 포함한 분석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인용문헌 조사대상 출처로서 문헌정보학 관련 3개 학회지만을 선정한 점이다. 서지학회지는 3개 학

회지에 게재되는 논문들과 학문영역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고, 참고문헌의 성격이 대부분 개인들이 소장하기에 어려운 자료들로 예상되어 전체표본집단에 극단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제외하였다. 같은 이유로서 3개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중 고서지학 영역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범위로서 인용문헌 분석에서는 인용문헌의 수집경로만을 조사하여 각 경로에 따른 비율을 분석하였는데, 비공식채널을 통한 수집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지적구조라든지 수집자료의 종류 등의 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외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행태분석에서는 응답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해결책 등에 연구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도록 별도로 연구되어야 하므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용문헌”이란 분석대상 학회지에서 인용한 문헌을 가리키는 것이나, 각 학회지의 편집체계가 상이한 이유로서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참고문헌 목록의 전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정보의 유통

### 2.1 공식 및 비공식 채널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 채널의 어느 한 가지만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하나 또는 조합된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며, 그 두 가지 채널의 차이를 정보원과 최종

정보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성을 중시하여 구분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F.W Wolek and B.C.Griffith 1980, 412).

그러나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공식,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전달되는 정보의 종류를 규명하는 많은 연구에서는 주로 각각의 채널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가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어떤 매체에 의해 정보가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왔다.

즉, 국내·외 연구활동으로는 주로 연구자들의 정보소스에 대한 공식·비공식 커뮤니케이션과 문헌종류별 이용에 관한 주제에 한정해 있으며, 부분적으로 인용 분석에 의한 지적구조 분석이 있다.

그 개관을 보면, 국내의 경우 이해정(1986)의 산업체 부속연구소 연구자들의 이용정보유형, 정보원, 정보채널, 정보탐색 유형의 조사 분석, 김용근(1983)의 연구자 정보 이용 목적, 이용정보형태 등의 분석, 한복희(1977)의 원자력학 분야 학술잡지(국내)의 인용분석, 사공복희(1980)의 연구소 연구원들의 정보이용과 요구에 대한 연구 등이 있으며, 강기환, 조상천(1982), 김용성(1988)의 정보원 인용 분석, 박정윤(1978)의 문헌이용동태 인용분석이 있고, 김영진(1986), 조명희(1992), 박선영(1992), 서은경(1992) 등이 정보이용채널 분석과 더불어 주제구조 또는 지적구조에 관한 분석 등이 있다.

김태수(1984)는 도서관학 연구자들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역시 비공식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종류를 규명하는 연구였다. 한편 문경민(1993)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정보의 유통문제보다는 1950년대 말부터 1991년까지의 주제, 연구방법, 대상 등의 연구내용을 분석한 것이었다.

국외의 경우 Rosebloom, wolek(1964)의 정보입수 방식 및 정보소스 연구, Allen(1966), Cooney와 Allen(1974)의 정보전달 채널연구, Holland, Stead, Leibrock 등(1976) Mick, Lindsey, Callahan 등(1980)의 개인의 특성, 업무환경특성과 정보이용 행동 등 연구, Herner(1954), Chen(1974), Hall(1973) 등의 정보요구 및 이용 연구, Crawford(1971)의 전달경로 구분, Lancaster와 Smith(1978)의 정보 전달과정상의 역할과 정보전달 상의 문제점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정보 전달경로 또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이용태 및 정보소스 등에 관한 것이며, 정보의 매체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분야 연구자 간의 정보자료 수집에 대한 유통경로의 분석적 연구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전달 경로에 있어서 Wolek와 Griffith 등(1980)이 정의한 바와 같이 정보전달의 상호 직접적 작용성을 근거로 하여 개인적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정보수집 교환을 비공식적 채널로, 공식적인 정보중개기관의 개입을 통한 수집을 공식 채널로 정의하고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자료 수집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2.2 정보의 공동이용

정보자료의 공동이용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도서관 협력활동에 의한 상호 대차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도서관 협력활동의 역사는 그리 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능 또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조직에 있어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말경 422개(Anne Woodsworth 1991, 3)의 도서관 상호협력기구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9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창근 1994). 이러한 조사결과는 공식적인 조직을 통한 정보자료의 상호공동이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 상호간, 특히 동일분야 연구자 상호간 개인소장자료의 공동이용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승채(1986)는 비공식 정보전달 매체 및 채널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즉, 개인적으로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들도 공동으로 이용하자고 하는 제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 및 학술정보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간의 협력활동이 미약한 현실에서 연구자가 소속된 단일 도서관만으로 필요한 정보자료를 망라적이고 신속하게 입수

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개인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연구자가 진행중인 정보와 같은 미공개 정보들은 공식적인 정보중개기관을 통해서 입수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중복연구방지와 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상호보완적 공동활용을 위해서도 동일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자료 공동이용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실로 크다고 판단된다.

## 3. 연구자의 인용(참고)문헌 및 이용행태 분석

### 3.1 조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용문헌의 수집경로를 확인하고 각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용문헌을 수집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논문저자가 직접 해당논문에서 인용한 문헌마다 수집경로를 표시하도록 의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은 1995년도에 발행된 문헌정보학 관련 3개 학회지<sup>1)</sup>에 게재된 논문들이다.<sup>2)</sup> 또한 동일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자료 인용 및 공동이용에 대한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정보자료 수집행태, 정보자료 인용행태, 정보자료의 공동이용행태에 관한 항목을 설정

1) 3개 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95년도 제23집의 출판지면으로 '94년도 제21집을 분석함)이며 최근 1년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인용문헌의 수집경로에 대한 저자의 기억을 고려해서였으며, 공동연구는 같은 이유로 제외하였다.

2) 분석대상 인용문헌 중 중복 인용은 첫 인용만 인정하였고, 재인용의 경우는 원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 질문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996년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행태분석을 위한 질문지 및 논문저자의 인용 문헌 목록을 우편 전달방법에 의해 의뢰하고 수집하였다. 조사결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인용문헌의 수집경로와 각 경로에 따른 인용문헌 수집정도는 각 연구자 별 수집경로 빈도수 계산에 의한 비율로써 확인하고, 인용문헌 수집경로와 연구자의 경력과 논문편수에 의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질문지에 의한 설문조사결과는 각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의 단순빈도 계산에 의한 기술통계를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상호관련성이 있는 문항 간에는 두 문항의 교차관계를 확인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MS Windows에서 작동하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과 기술통계 데이터를 얻었다.

### 3.2 인용문헌 분석

1) 인용문헌 수집경로 분석 및 가설검정 조사대상 연구자 및 인용문헌은 3개 학회지에 단독 발표한 44명의 저자이었으며, 응답자에 의해 확인된 분석대상은 24명의 논문의 인용문헌이었다. 논문저자가 직접 확인한 인용문헌의 수집경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채널을 통해서 전체 인용문헌의 1/2 이상을 수집한 사례가 응답자의 2/3였으며, 이 경우 공식채널의 비율 분포가 30%로부터 100%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30% 이하는 단

지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비공식채널 비율이 0%에서 70% 사이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인용문헌 수집에서 공식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는 비공식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적게 이용하지만, 비공식채널을 이용하는 연구자는 공식채널도 비슷한 비율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서론에서 설정한 가설 즉, "인용문헌 수집에 있어서 공식채널 또는 비공식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보다 그렇지 않은 연구자가 더 많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  = 공식채널이나 비공식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의 비율

따라서  $H_0 : P=0.5$  V.S.  $H_1 : P<0.5$

위를 검정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주로 공식채널이나 비공식채널을 수집하는 자료로부터 주로 공식채널이나 비공식채널을 수집하는 사람의 비율을 계산하면

$$\hat{P} = \frac{9}{24} = 0.375$$

귀무가설하에서 계산된 검정 통계량의 값은

$$Z = \frac{\hat{P} - 0.5}{\sqrt{0.5 \times 0.5/24}} \approx -1.2243$$

이므로 이 검정의 P-값은  $P(Z < -1.2243) \approx 0.1$ 이다. 즉 10% 정도의 유의수준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될 수 있으므로 주로 공식 비공식채널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1〉 인용문헌 수집경로의 공식채널 비율

| 공식채널의 비율 | 빈도 |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
| .04      | 1  | 4.2 | 4.2    |
| .30      | 1  | 4.2 | 8.3    |
| .36      | 1  | 4.2 | 12.5   |
| .39      | 1  | 4.2 | 16.7   |
| .40      | 2  | 8.3 | 25.0   |
| .43      | 1  | 4.2 | 29.2   |
| .45      | 1  | 4.2 | 33.3   |
| .55      | 1  | 4.2 | 37.5   |
| .56      | 2  | 8.3 | 45.8   |
| .59      | 1  | 4.2 | 50.0   |
| .61      | 1  | 4.2 | 54.2   |
| .62      | 1  | 4.2 | 58.3   |
| .70      | 1  | 4.2 | 62.5   |
| .75      | 1  | 4.2 | 66.7   |
| .85      | 1  | 4.2 | 70.8   |
| .88      | 1  | 4.2 | 75.0   |
| .90      | 2  | 8.3 | 83.3   |
| .90      | 1  | 4.2 | 87.5   |
| .93      | 1  | 4.2 | 91.7   |
| .95      | 1  | 4.2 | 95.8   |
| 1.00     | 1  | 4.2 | 100.0  |
| Total    | 24 | 100 | 100    |

2) 인용문헌 수집경로와 연구자 경력 및 논문편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자의 경력과 논문편수가 많을 수록 연구활동의 폭이 넓고, 동일분야 연구자와의 친밀한 친분관계로 비공식채널을 통한 수집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형 회

귀모형을 접합시켜 분석하였는데, 즉 그 식은  $Y = \beta_0 + \beta_1x_1 + \beta_2x_2 + \epsilon$ 로써( $\beta$ 는 회귀계수,  $x_1$ 은 경력,  $x_2$ 는 논문편수,  $\epsilon$ 는 오차,  $Y$ 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수집 경로 비율을 나타냄)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표 2〉와 같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값 = 0.9410$ ). 즉 연구자의 연구경력이나 논문편수와 인용문헌 수집경로와는 어떤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 변수들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밝혀 수 없었던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은 계속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2〉 선형회귀분석 결과

| 변수   | 계수        | 표준오차     | P값     |
|------|-----------|----------|--------|
| 연구경력 | 0.013779  | 0.297302 | 0.9635 |
| 논문편수 | -0.006522 | 0.019097 | 0.7363 |
| 상수항  | -1.592561 | 0.982891 | 0.1208 |

### 3.3 이용행태 분석

#### 3.3.1 인적사항

연구자의 이용행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자는 모두 44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자는 33명이었다. 응답자의 인적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 인적사항

| 직위   |    | 연구경력      |    | 논문편수      |    |
|------|----|-----------|----|-----------|----|
| 직위   | 인원 | 년수        | 인원 | 편수        | 인원 |
| 교수   | 14 | 2년 이하     | 3  | 5편 이하     | 5  |
| 부교수  | 12 | 3-5년 이하   | 7  | 6-10편 이하  | 7  |
| 조교수  | 1  | 6-10년 이하  | 7  | 16-20 이하  | 6  |
| 전임강사 | 1  | 11-15년 이하 | 6  | 16-20편 이하 | 5  |
| 강사   | 4  | 15년 이상    | 8  | 21-30편 이하 | 3  |
| 연구원  | 1  | 무응답       | 2  | 31편 이상    | 4  |
|      |    | 무응답       |    | 무응답       | 3  |
| 계    | 33 |           | 33 |           | 33 |

3.3.2 자료수집에 대한 의견 분석

① 자료수집에 있어 주로 이용하는 채널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 채널을 이용한다는 연구자가 가장 많았으며(51.5%), 그렇지 않다는 연구자가 가장 적었다(6.1%). 그러나 앞의 인용문헌 수집경

로〈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의 인용에서는 주로 공식채널을 이용한 경우(공식채널 수집비율 75% 이상인 연구자)가 전체의 37.5%로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경우 그 이유로서 공식채널을 공히 신속수집(54.5%), 출처파악 용이(48.5%), 절차 간편(30.3%) 등이 주요한 이

〈표 4〉 공식채널 이용여부 및 그 이유

( )는 백분율

| 공식채널 이용<br>이유 | 그렇다       | 아니다       | 경우에따라서   | 공식 : 비공식<br>1/2씩 | 무응답     | 계         |
|---------------|-----------|-----------|----------|------------------|---------|-----------|
|               |           | 17 (51.5) | 2 (6.1)  | 10 (30.3)        | 3 (9.1) | 1(3)      |
| 신속수집          | 10 (30.3) | 1 (3)     | 6 (18.2) | 1 (3)            | 0(0)    | 18 (54.5) |
| 비용저렴          | 0 (0)     | 0 (0)     | 0 (0)    | 0 (0)            | 0(0)    | 0 (0)     |
| 무료            | 0 (0)     | 0 (0)     | 2 (0)    | 0 (0)            | 0(0)    | 2 (6.1)   |
| 출처파악용이        | 12 (36.4) | 0 (0)     | 3 (0)    | 1 (3)            | 0(0)    | 16 (48.5) |
| 절차간편          | 5 (15.2)  | 1 (3)     | 2 (0)    | 1 (3)            | 1(3)    | 10 (30.3) |
| 기 타           | 0 (0)     | 1 (3)     | 0 (0)    | 0 (0)            | 0(0)    | 1 (3)     |
| 무응답           | 0 (0)     | 0 (0)     | 1 (3)    | 0 (0)            | 0(0)    | 1 (3)     |



유했다(1인이 2가지 이상 check한 경우 포함).

② 입수 자료 중 일반적으로 정보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비공식 채널을 통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자료로서 학위논문의 입수 경로는 <표 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공식적 채널을 통한 수집이 많다.

③ 참고가 필요한 논문의 수집이 모두 가능했는지의 여부는 <표 6>과 같다. 학위논문을 공식적 채널을 통하여 수집하는 경향에 따라 일반적으로 논문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불가능하였던 경우도(보통 중 일부 불가) 많은 것으로(약 61%) 확인되었다.

### 3.3.3 자료 인용에 대한 의견 분석

① 평소 연구활동에서의 자료인용 행태 분석으로서 연구자가 소장한 자료를 위주로 이용하는지의 여부는 <표 7>과 같다.

즉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우선 연구자가 소장한 자료를 인용하며(약 79%), 그 후 연구진행과정에서 추가로 확인 또는 수집되는 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자료인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외국자료의 이용에 대한 행태 분석으로서 자료이용에 대한 이유를 상호교차 분석하였다. 이 항목은 동일 분야 연구자 간의 상호자료 교환 등의 필요성

<표 5> 학위논문 입수경로

( )는 백분율

| 경로 | 도서관     | 논문저자   | 해당학과(기관) | 본인소장  | 기타    | 전체      | 대상      |
|----|---------|--------|----------|-------|-------|---------|---------|
| 인원 | 23 (70) | 6 (18) | 4 (12)   | 3 (9) | 2 (6) | 38(115) | 33(100) |

<표 6> 학위논문 수집의 가능성

( )는 백분율

| 가능성 | 매우 가능   | 가능        | 보통        | 불가       | 전혀 불가 | 전체       |
|-----|---------|-----------|-----------|----------|-------|----------|
| 인원  | 1 (3.0) | 12 (36.4) | 15 (45.5) | 5 (15.2) | 0 (0) | 33 (100) |

<표 7> 본인 소장 자료를 위주로 이용하는 정보

( )는 백분율

| 이용 정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전체      |
|-------|--------|----------|----------|---------|--------|---------|
| 인원    | 1(3)   | 11(33.3) | 14(42.4) | 6(18.2) | 1(3)   | 33(100) |

〈표 8〉 인용시 주로 이용하는 자료 및 그 이유

( )는 백분율

| 이용<br>이유<br>주로<br>이용자료 | 권위가<br>있어서 | 입수가<br>용이해서 | 입수기간이<br>짧아서 | 본인소장자료<br>가 많아서 | 기 타      | 무응답       | 계         |
|------------------------|------------|-------------|--------------|-----------------|----------|-----------|-----------|
| 국내자료                   | 0 (0)      | 0 (0)       | 0(0)         | 0 (0)           | 0 (0)    | 0 (0)     | 0 (0)     |
| 외국자료                   | 5 (15.2)   | 0 (0)       | 0(0)         | *2 (6.1)        | 5 (15.2) | 0 (0)     | 11 (+1)   |
| 연구내용에<br>따라서           | 3 ( 9.1)   | 1 (3.0)     | 0(0)         | 0 (0)           | 4 (12.1) | 14 (42.4) | 22 (66.6) |
| 계                      | 8 (24.2)   | 1 (3.0)     | 0(0)         | *2 (6.1)        | 9 (27.3) | 14 (42.4) | 33 (+1)   |

\* (외국자료 이용하는 연구자가 이용 이유를 2가지 check한 경우로서 1사례가 있음.  
“+”는 중복 check의 경우)

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다(표 8 참조). 이 질문에서 무응답이 많았으며(42.4%), 응답자 중 국내자료를 주로 이용한다는 연구자는 없었으며, 외국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권위가 있어서가 주요 이유였다. 기타 내용의 적절성, 최신성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4 자료의 공동이용에 대한 의견 분석

① 연구활동에서 동일분야 타 연구자의 소장자료 중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 9〉과 같이 매우 그

렇다(15.2%). 그렇다(63.6%)로 전체 중 약 4/5가 긍정적인 회답을 함으로써 타 연구자의 소장자료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동일분야 타연구자와 상호간 소장 자료를 이용한 경험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표 10〉과 같이 가끔 또는 자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45.4%)와 있었던 경우(33.3%)를 포함하면 이것 역시 전체 중 약 4/5 가량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타 연구자가 소장자료 중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의 여부

( )는 백분율

| 필요성 예상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계       |
|--------|---------|----------|---------|--------|--------|---------|
| 인원     | 5(15.2) | 21(63.6) | 6(18.2) | 1(3.0) | 0(0)   | 33(100) |

〈표 10〉 타연구자와 상호소장자료 이용경험 유무

( )는 백분율

| 이용 경험 | 매우 자주  | 자주      | 가끔      | 있었음      | 전혀 없음   | 계       |
|-------|--------|---------|---------|----------|---------|---------|
| 인원    | 1(3.0) | 6(18.2) | 8(24.2) | 11(33.3) | 7(21.2) | 33(100) |

③ 동일분야 타 연구자가 연구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 질문은 상호 공동이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응답자가 제공하겠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동일분야 연구자 상호간 소장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동일분야 연구자들의 전공과 관련된 자료의 이용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

겠다.

④ 연구자가 소장한 자료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공동이용을 위해서 전자화(電子化)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표 12〉와 같이 이니다라고 응답한 연구자는 단지 9.1%에 불과했다.

⑤ 연구자가 소장한 자료의 서지정보를 도서관과 같은 공식채널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

〈표 11〉 연구자 소장자료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

( )는 백분율

| 제공여부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계       |
|------|---------|----------|---------|------|--------|---------|
| 인원   | 5(15.2) | 23(69.7) | 5(15.2) | 0(0) | 0(0)   | 33(100) |

〈표 12〉 연구자 소장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전자화의 필요성 여부

( )는 백분율

| 전자화필요성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계       |
|--------|---------|----------|---------|--------|--------|---------|
| 인원     | 9(27.3) | 13(39.4) | 8(24.2) | 4(9.1) | 0(0)   | 33(100) |

〈표 13〉 공식채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자 소장자료의 서지정보 제공의사 유무 여부

( )는 백분율

| 제공의사 여부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계       |
|---------|---------|----------|---------|------|--------|---------|
| 인원      | 6(18.2) | 21(63.6) | 6(18.2) | 0(0) | 0(0)   | 33(100) |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한 명도 없어서 모두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3 참조〉

⑥ 동일분야 연구자의 연구진행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단지 1명만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있었다. 즉 모든 연구자는 동일분야 연구자의 연구진행중인 정보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복연구의 방지와 연구와 관련된 자료의 상호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표 14 참조〉.

또한 타 연구자의 연구진행정보를 알기를 원하는 연구자(전체의 91%) 중 본인의 연구진행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공개하겠다고 응답한 연구자가 약 4/5이며 약 1/5 정도 연구자는 경우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부분적으로는 공개로 인한 아이디어 도용문제를 경계하는 듯이 보였다.

### 3.4 평가

① 인용문헌분석에 있어서 설정된 가설의 연구가설이 채택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인용문헌 수집채널로 공식과 비공식 채널을 상황에 따라 고르게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비공식채널도 많이(인용비율이 전체 인용의 26% 이상 75%까지인 사례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3/4)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 간에 상호 소장자료 공동 이용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연구자의 경력 및 논문편수와 인용문헌의 수집채널 간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예상했던 선형회귀모형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의 유의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연구경력이 많을수록 동일분야 연구자 상호간 친밀도가 높으므로 소장자료의 상호교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부정한 결과였다.

③ 자료수집에 대한 연구자의 행태분석에서 는 주로 공식채널을 이용하며, 자료의 “신속

〈표 14〉 동일분야 연구자 연구진행정보의 필요성 여부

( )는 백분율

| 필요성여부<br>공개의사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렇다    | 전혀 아니다 | 계        |
|---------------|----------|----------|--------|--------|----------|
| 있다            | 13(39.4) | 8(24.2)  | 0(0)   | 0(0)   | 21(63.6) |
| 없다            | 0(0)     | 0(0)     | 0(0)   | 0(0)   | 1(3)     |
| 경우에 따라서       | 0(0)     | 8(24.2)  | 2(6.1) | 0(0)   | 10(30.3) |
| 무 응답          | 1(3)     | 0(0)     | 0(0)   | 0(0)   | 1(3)     |
| 계             | 14(42.4) | 16(48.5) | 2(6.1) | 0(0)   | 33(100)  |

한 수집”, “출처과약 용이”, “절차의 간편성” 등이 그 주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를 가설의 검증결과와 함께 분석해 볼 때 실제로 연구에 인용한 자료는 비공식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수집하였다. 즉 이 분석결과는 문헌정보학 연구자에게는 비공식적 채널이 다양하지 않아서 인용할 자료의 수집을 위해 일차적으로 공식적 채널에 접근하나, 필요한 자료 수집의 많은 부분이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자료인용에 대한 행태분석에서 상시 이용이 가능한 연구자 소장자료가 우선 인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 자료보다는 외국 자료가 많이 인용되며, 그 이유로서 자료의 권위와 연구자가 필요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관한 자료는 미리 많이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⑤ 동일분야 연구자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에 대한 인식 및 행태분석에서 타 연구자의 소장자료가 연구자의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 이용한 경험이 이미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공동이용에 대한 의견에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서지정보 제공과 자료의 전자화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구진행정보에 대하여 연구자 상호간에 그 정보들을 알려주고,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중복연구의 방지와 필요한 자료의 상호교환에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의 의견으로서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4. 결 론

정보이용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재 연구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지정보와 원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분야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가 유사하여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소장한 자료가 많고, 공식채널을 통한 수집에 있어서도 단일 기관에서 망라적으로 소장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의 여러 제약이 따르므로 연구자 상호간 정보자료 상호교환 이용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특히 중복연구 방지 등의 이유로 연구자의 연구 진행정보의 공개와 상호 정보교환은 그 필요성이 실로 크다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이용문헌 수집에 있어서 주로 공식(또는 비공식)채널을 이용하는 연구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연구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문헌정보학 연구자는 인용문헌 수집을 위해 비공식채널도 많이(인용문헌에서 비공식채널을 통한 수집이 26%~75% 수준인 경우가 전조사대상자의 약 3/4)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자의 연구경력과 논문편수는 인용문헌의 입수채널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즉 인용문헌의 수집경로와 연구자의 연구경력 및 논문편수에 대한 선형회귀모형 분석에서는 각 변수간의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구경력이 많을수록 동일분야 연구자 상호간에 친밀관계와 빈번한 비공식적 교류를 고려할 때 밝혀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3. 질문지를 통한 행태분석에서는 연구자의 자료수집 채널에 대한 행태가 주로 공식채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인용문헌 분석에 의한 실제에 있어서는 비공식채널을 통한 수집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문헌정보학 연구자는 평소 자신의 연구에 연구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 위주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고(긍정 36.3%, 부정(21.2%), 국내자료보다는 외국자료에 비중을 두며, 외국자료 인용의 이유에서는 권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동일분야 연구자 상호간 소장자료의 공동이용에 매우 긍정적이며, 소장자료의 전자화와 서지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연구진행정보에 대한 공개와 상호이용에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문헌정보

학 연구자들 간에 서지정보 및 원정보의 상호 공동이용을 위한 방법으로서 이미 각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전산화에 편승하여 동 정보들을 소속대학 도서관에 제공함으로써 공동이용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자간 직접적 접촉을 위해서는 이미 일반화된 PC 통신과, Internet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적 통신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진행정보의 공개와 상호공동이용방법으로는 학회 또는 도서관협회 등의 공조직이 주체가 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계속 갱신·유지함으로써 연구자 상호간 호혜적 정보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이용방안에 대해서 향후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간 소장자료의 상호 공동이용을 위한 서지정보 공개와 원정보의 제공방법, 연구진행정보의 공개 및 아이디어 도용방지, 우선권 부여 방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강기환·조상천. 1982.12. 화학분야 정보원의 인용분석; 경북대. 영남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계명도서관학보(계명대) 1 : 50-72.

김성호. 1989. 한국 행정학 논문의 인용문헌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영진. 1986. 논문의 동시 인용을 통한 지적

구조의 규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용성. 1988. 한국사회과학자들의 정보원에 관한 인용문헌분석. 도서관학. 15 : 73-94.

김창근. 1994.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선영. 1992. 공인용분석에 의한 경제학의 지적구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
- 박정윤. 1978. 한국경제학자들의 문헌이용동태 인용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 서은경. 1992. 정보검색분야의 지적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 영어문화권 저자들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9 : 55-82.
- 신승남. 1991. 한국 의류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문헌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대 대학원.
- 염경숙. 1985. 인용문헌분석; 도서관학. 사회과학대학논문집(효성여대). 2 : 74-90.
- 이승채. 1986. 물리학자들의 학술정보 이용과 전달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정영미. 1995. "인터넷학술정보자원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2권 1호, 1995, 42
- 조명희. 1992. 전문영역의 주제구조 분석; 저자공인용에 근거하여. 도서관학 22 : 331-360.
- 조인숙·이용봉. 1989. 국토개발 연구분야의 문헌정보 인용분석. 국토연구 10 : 69-84.
- 한복희. 1977. 원자력분야 학술잡지(국내)의 인용분석. 도협월보 18, 7 : 2-6.
- Allen, Thomas J. 1966. "Performance of Information Channels in the Transfer of Technology", Industrial Management Review, 8 : 87-98.
- Chen, C. 1974. "How do Scientists Meet Their Information Needs?", Special Libraries, LXL : 272-280.
- Cooney, S. and Allen, T. J. 1974. "The Technological Gatekeeper and Policie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ansfer of Information." R&D Management(UK) 5 : 32
- Crawford, Susan. 1971. "Information Communication Among Scientists in Sleep Research", JASIS 22:301-310.
- Hall, R.W. 1973. "Technical Information Habits of Engineers", Chemical Engineering Progress, 69.3 : 167-171.
- Herner, Saul. 1954. "Information Gathering Habits of workers in Pure and Applied Science".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46.1 : 228-236.
- Holland, W. E. Stead, B. A. and Leibrock, R. C. 1976. "Information Channel/Source as a Correlate of Technical Uncertainty in a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on Engineering

Management, EM-3 : 163-167.

Lancaster, F. W. and Smith, L. C. 1978.

“Science, Scholarship and the  
Communication of Knowledge”  
Library Trends, 27 : 367-388.

Mick, Colin K., Lindsey, Georg N. and

Callhan, Daniel. 1980. “Toward  
Usable User Studies”, JASIS. 31,  
5 : 347-356.

Rosembloom, R. S. and Wolek, F. W.

1967. Technology, Information,  
and Organization ; Information  
Transfer in Industrial R&D.

Boston : Harvard University Grad-  
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  
tration.

Wolek, F. W. and Griffith, B. C.. 1980.

“Policy and Informal Communica-  
tions i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In : B. C. Griffith  
ed. Key Papers in Information Sci-  
ence. Washington D.C. : ASIS.

Woodsworth, Anne. 1991. Library Coop-

eration and Networks : a Basic  
Reader. New York ; Neal Schumal  
Pub., Inc. 3.



안녕하십니까?

연구와 교육에 여념이 없으신 선생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신동민입니다.

금번 이렇게 서신으로 번거로운 부탁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용 자료 수집 경로와 연구자간 개인소장자료 상호 이용에 관한 고견을 들어서 본인이 수행중인 연구에 반영하고자 염치 불구하고 첨부한 질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비록 작금의 정보이용환경이 점차 電子化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도 시·공을 초월하며 신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수집의 불완전성과 더불어 비공개정보 등의 확인·수집을 위해서는 동일분야 연구자간 자료의 상호활용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사 다망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저의 연구의 결실을 위해 첨부한 질문지에 답하시어 반송용 봉투를 이용, 우송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부탁드립니다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건강과 연구의 진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 2.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신동민 드림

\*\* 본 질문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채널 = 도서관과 같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제공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경우의 경로

비공식채널 = 이용자(연구자)가 사적(개인적)으로 정보소유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경우의 경로

※ 열람의 경우도 동일하게 구분.

\*\* 질문에 첨부한 귀하 논문의 인용(또는 참고)문헌 목록을 보시고 그 문헌들이 “공식채널”을 통해 입수된 경우 “1”을, “비공식채널”을 통해 입수된 경우 “2”를, 수집경로가 기억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으신 경우는 “3”을 그 문헌의 저자 옆에(또는 밑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인적사항

1. 직위 : (                    )

2. 근무기관 : 대학연구소 실무부서
3. 연구경력 : 2년 이하 3년 이상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10년 이상 15년 이하 15년 이상  
\*\*연구경력 기간산정은 최종학위 취득 후 실제적인 연구개시 이후부터 적용\*\*
4. 발표한 논문 총 편수 : ( )편

## Ⅱ. 자료수집에 대한 의견

1. 주로 공식채널을 이용하십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경우에 따라서 ④공식·비공식이 1/2씩이다.
2. 공식(또는 비공식)채널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신속수집 가능 ②비용 저렴 ③무료 ④출처파악 용이 ⑤절차 간편 ⑥기타( )
3. 자료조사 후 학위논문의 경우 입수처는 주로 어느 곳입니까?  
①도서관 ②논문저자 ③해당학과(기관) ④본인이 이미 소장 ⑤기타( )
4. 학위논문 수집은 모두 가능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 Ⅲ. 자료인용(또는 참고)에 대한 의견

1. 평소 연구활동에서 자료인용(참고)은 본인이 소장한 자료를 위주로 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2. 자료인용(참고)의 경우 주로 어느 자료를 이용하십니까?  
①국내자료 ②외국자료 ③연구내용에 따라서(가리지 않음)
3. "2"번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권위가 있어서 ②입수가 용이해서 ③입수기간이 짧아서 ④본인소장자료가 많아서 ⑤기타( )

## Ⅳ. 동일분야 연구자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교환, 제공)에 대한 의견

1. 귀하의 연구활동에서 동일분야 타 연구자의 소장자료 중 귀하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2. 동일분야 타 연구자와 상호간(또는 일방적)에 소장자료들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가끔 ④있었음 ⑤전혀 없음

3. 동일분야 타 연구자가 귀하의 소장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4. 연구자들이 소장한 자료를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동이용을 위해 電子化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5. 귀하가 소장하신 자료의 서지정보에 대하여 도서관과 같은 공식채널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 전국적인 이용에 동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6. 동일분야 연구자가 연구중인 연구진행정보(주제, 목적, 방법, 연구기관 등 진행현황)에 대하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7. '6' 번과 관련하여 귀하가 연구중인 연구진행정보를 공개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경우에 따라서